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산단에 자동차 복합센터 구축 본격화

1050억원 투입으로 993억원 생산·1043명 고용 효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스마트 그린산단과 시너지 기대

군산지역에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칭, 이하 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는 17일 군산 에이본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사업시행 자자체인 김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여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으로 원활한 사업대상지 확보와 활용을 위해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는 복합센터 조성으로 품질검증제도 마련, 행정지원센터, 경매장 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높은 상품성과 신뢰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수출 지원

가능 시설 등을 기반으로 중고차 등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정에 맞춰 사업대상지 확보·제공, 군산시는 센터 조성 및 시설관리 등 사업 총괄을 담당하게 된다.

복합센터는 새만금산단단지 내 약 6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민간재원 포함 1,0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유발 993억원, 부가가치 782억원과 함께 1,043명 고용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 모집은 올해 상반기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합센터는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의 마당형(Yard Style) 판매형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유통·물류기지 및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수출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

비·튜닝·부품 단지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어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산단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산단은 미래차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클러스터(협력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면서 "자동차 수출시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산업유기 지역으로 한계에 부딪힌 군산의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경제와 새만금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간사업자 모집 및 선정 등 앞으로 남은 관련 행정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17일 군산 에이본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김임준 군산시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 김임준 군산시장.

그린성장 실현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만금개발청 정부 업무보고

녹색에너지·문화관광

경제특구 등 전략목표 설정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사업 2단계(2021~)를 맞아, 새만금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2021년 업무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에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먼저, 새만금을 그린뉴딜·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청정·녹색에너지 ▲문화관광 ▲첨단농업 ▲경제특구 ▲명품수변도시로 전략목표를 새로이 설정했다.

또한, 현 기본계획상 명시되지 않은 사업 완료시기를 2050년으로 명시하고, 실현가능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이행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10년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자부담인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특화 인센티브(투자혜택)를 확대해 개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내외 여건변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비전 및 전략 변화 등을 반영해 중점 유치산업을 선정하고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한다.

또, 새만금의 차별화된 인센티브인 장기임대용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유치에 나선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관련 새만금사업법 개정, 각종 특구로 지정된 투자 강점을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환경조성을 기반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청 소관인 2.8GW에 대해 민간협의회에서 추진방향을 확장한 후, 1단계(1.7GW)는 2022년, 2단계(0.9GW)는 2025년 이후 발전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개발청은 국정과제인 공공주도 매립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및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항만 배후도시 또는 수소시범도시 등 후속사업을 검토해 추진한다.

또,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스마트수변도시 매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분양계획 및 조성계획을 마련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기능 기본설계,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해 스마트 수변도시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그린모빌리티(친환경 이동수단) 등을 관광과 연계하는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유치 개발과 함께 문화·레저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매립이 진행 중인 켈리리대회 용지는 올해 매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시가지지구와 1호 방조제 명소화용지에는 민간투자자가 호텔·리조트 조성을 위해 연내 착공한다.

또한, 새만금박물관, 고군산군도 해상케이블카,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등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새만금 대표축제인 노마드 축제에 케이팝(K-pop) 콘서트를 결합해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2단계 사업 착수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스마트 그린산단 등 새만금의 그린뉴딜이 본격화된다"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그린성장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치의학 교육 국내 최초 6년 인증

전북대 치과대학

전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재곤)이 치의학 교육인증 평가에서 국내 최초 치의학교육평가 최고 등급인 6년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치의학 교육인증 평가는 국내 치과대학이 양질의 치과의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가능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평가를 통해 치과대학원의 교육과정 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

전북대 치대는 지난해 9월 방문평가에서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자원, 임상교육환경 등 6개 영역에 걸쳐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에서 치대는 개인의 역량 달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졸업생 역량평가 자료를 수합하는 등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교육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임상교육 역시 전문적 시설과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됐다.

이 밖에도 교육과정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치의학도서관과 학사운영시스템을 갖췄고, 특히 최근 임상습득을 완벽히 학생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 점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전북대 치대는 국내 11개 치과대학 중 최초로 6년이라는 장기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방대학의 지역적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 우수한 치과 의료인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기관으로서 공인받았다. /정은성 기자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높은 위상과 천혜의 자연에서 자란 높은 품질의 고창 농수축산품을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전달하겠습니다.